

# 화학사고 발생 및 복귀시 행동요령

## [부산광역시]

### □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관계자 행동요령

#### 사고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유해화학물질의 화재, 폭발, 누출 사고발생 시는 신속히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관할 지자체, 유역(지방)환경청 등에 신고합니다.
- 언제, 어디서, 어떤 물질(CAS 번호)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기상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.



#### 사업장내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, 방송, 화재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,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.
-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밸브, 마개, 뚜껑 등을 잠그거나 닫아 누출을 차단합니다.
- 또한, 사고지역은 대응요원 이외의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.



#### 운반차량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운반차량에서 화재 및 누출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엔진을 정지합니다.
- 차량에서 하차하여 불꽃, 스파크, 증기발생, 바닥으로의 누출은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.
  - 사고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차량은 에어컨 및 히터를 끄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해당지역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유도합니다.
- 전복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하여 신고합니다. (운반물질 신고)



##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

-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건조된 흙이나, 모래 등을 이용하여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.
-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도랑이나 둑을 설치하여 누출된 유독물이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.
- 웅덩이 및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 유입을 방지합니다.



##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

- 가능하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합니다.
- 화재 진압 시에는 반드시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
  - 황산과 같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가 확대되는 물질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.
- 갑작스런 폭발에 대비하여 가능한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불을 꺼야 합니다.
- 사고 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,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합니다.



##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

-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, 안전지역 철수 후 제독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현장에서 회수한 유해화학물질, 방제약품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맡겨 위탁처리 합니다.



## □ 화학사고 발생 후 복귀 시 행동요령

### 복귀시 행동요령

# 01

담당공무원이 주민복귀  
방송을 할 때까지  
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,  
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를  
하도록 합니다.

(대피 시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 
뛰지 않습니다.)



# 02

사고지역에서는 노출된  
식수나 음식을 절대로  
먹지 말고, 오염된  
물체를 맨손으로  
만지지 않도록 주의  
기울입니다.



# 03

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 
119에 신고 후 병원,  
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 
신속히 이동하여  
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 
합니다.

(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치료를 시도하지  
않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.)



# 04

증상이 나타나지  
않더라도 화학물질에  
노출되었을 가능성이  
있다면, 입고 있던 옷  
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 
폐기하고, 샤워를 하도록  
합니다.

